

社會事業教育의 現況과 展望

金 顯 龍
(翰林大 社會事業學科 助教授)

I

自由主義 經濟體制下의 현대국가에서 社會福祉는 필수적인 국가적 目標가 되어 왔다. 自由와 競爭은 고귀한 것이고 현대사회의 발전에 견인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발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사회적 矛盾과 葛藤을 內在하고 있다. 기존 사회체제와 제도 내에서 이러한 社會問題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고, 이것이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의 개념을 발전시킨 動機가 되었다. 사회복지 개념의 범주에 속하는 社會福祉, 社會事業, 社會開發, 社會保障 등의 용어가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난 20년간 괄목할 만한 經濟成長과 工業化를 이룩함으로써 국민 생활수준은 향상하였고 빈곤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초래하였고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다. 더우기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은 갖지 못한 자의 상대적인 欲求와 期待水準을 상승시켜 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간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정부의 「民主福祉國家建設」은 일부 정치가의 政策 選好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現時代의 필연적인 요망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社會事業教育과 研究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II

1960년대말 우리나라 대학에 社會事業學科가 설치되기 시작한 이래 학과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77년에는 9개 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개설되었으며, 최근에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983년 현재 21개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수준에 사회사업학과 또는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수적인 증가와 함께 사회사업교육을 우리 사회의 要求에 적합하게 적응시키려는 노력이 그동안 시도되어 왔다. 그것은 각종 사회사업교육을 위한 연찬회와 사회사업대학협의회의 활동, 교수 개인적인 노력 또는 社會事業界의 요구에 대한 반응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우리 사회사업교육은 미국 사회사업의 研究風土에 영향을 받아 사회사업의 역할을 주로 治療와 豫防이라는, 專門知識과 技術의 次元에 중심을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1970년 중반 이후 이러한 경향에서 탈피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社會福祉 政策과 制度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0년을 전후하여 기존의 사회사업학과 중에는 상기와 같은 견해를 반영하여 학과 명칭 자체를 사회사업학과에서 사회복지학과로 개칭하는 대학이 있었다.

사회사업학과의 敎科課程은 그동안 수차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초의 사회사업 교과목은 미국의 대학원 수준의 교과목을 우리의 학부 수준에 그대로 이식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교과과정으로의 修正과 이에 따르는 陣痛은 당연히 있음직한 일이다. 사회사업의 토착화 문제는 社會事業界에 있어 온 해묵은 쟁점이 되고 있으나 한국적인 사회사업 교과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해답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의 다른 學問分野에 있어서와 같이 사회사업학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시기가 외국에서 발전된 研究業績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간이었다고 할 것이다. 외국의 지식과 기술을 수용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의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研究過程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사업학에 있어서의 지금의 단계는 외국의 연구업적을 체계적으로 소화 흡수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사실상 현재의 상태는 체계적인 수용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사업교육이 혼란되어 있는 국면도 없지 않다. 예를 든다면 사회사업의 중요한 과목인 케이스 워크(case work)에 있어서 과거에는 心理·社會的인 접근방법이 중요한 방법으로 다루어졌으나 외국에서 體系理論, 統合理論이 연구·발전되어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의 사회사업계 학자들이 그 쪽으로 물리는 것에서도 단편적으로 나타난다. 최근 몇 년간에는 사회사업교육계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쟁점이 있어 왔다. 그것은 사회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과목인 方法論과 社會福祉 政策과 制度에 속한 과목의 현 대학 교과과정이 차지해야 할 비중에 대한 相反된 견해이다. 사회사업학과 교수들을 전공별로 대별한다면 위의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추세에 따라 최근에 외국에서 연구하고 귀국한 학자들 가운데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를 전공한 학자들이 상당수 있다. 方法論을 강조하는 편에서는 사회사업의 전문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회사업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업학과의 교과목이 방법론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政策과 制度를 옹호하는 편에서는 우리 사회의 실정이 아직 사회사업의 專門知識과 技術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여건을 우리 사회에 조성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사회복지의 제도와 정책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법론이 발전하지 않은 유럽 국가에서 修學한 학자들 중에는 방법론적인 접근 방법이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脈絡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차원에서 주장하는 이도 있다.

각 대학은 이 양편의 주장 가운데서 해당 대학 교수들의 우세한 주장을 반영하거나 남녀학생들의 비율 등이 고려되어, 어떤 대학은 방법론 쪽에 어떤 대학은 정책과 제도 쪽에 特性을 두는 식으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현재보다 더 현저하게 각 대학 사회사업학과의 특색으로 나타날 것이다.

社會事業 敎科課程 중 중요한 과정은 實習科目이다. 최근에는 현장교육 또는 임상실습이라는 용어로도 표현되고 있다. 사회사업이 실천적 향적인 학문이므로 임상과 실습을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간주하는 반면, 현실적으로는 가장 形式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된 이론과 연구업적을 실천할 수 있는 社會事業機關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內容과 實踐分野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와 현장간의 간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큰 도시에 위치한 사회사업학과는 그 도시에 존재하는 사회사업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지만,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과는 실습장용 마련하기가 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代案으로서 여름, 겨울방학을 활용하는 Block Placement 방식을 채택하는 대학도 있고 최근에는 대학 내에 附設社會福祉館을 설립하여 실습장으로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지역사회로 실습기관의 범위

를 넓히고 농촌사회사업의 實習場을 개발하는 일, 사회사업기관이 아닌 사회문제의 현장에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제를 조사 분석하는 일 등에 실습의 시야를 넓히고 있다.

Ⅲ

사회사업학과 교수들은 기초과학분야 교수보다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사회사업학과의 敎科目이 각각 큰 범주로 나뉘어 제통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각 과목의 獨立性이 강하기 때문이다. 方法論 科目과 政策制度論 科目이라는 큰 범주로 대별하는 것 외에는 과목 상호간에 관련성이 적다. 예를 들어 西洋史科目은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서양근세사 등으로의 연관된 구분이 가능하지만 사회사업과목은 상호관련시키면서 구분할 만큼 분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회사업학과 교수들은 責任時間을 채우기 위하여 교수 자신이 깊이 연구한 특정과목 외에도 몇 과목을 연구하여 가르쳐야 한다. 둘째 이유는 사회사업학과 교수는 反復講義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기초학과인 경우 교수 자신이 전공한 한 과목만 담당하면서 나머지 책임시간은 교양과목 강의로 채울 수 있는데 이것은 비교적 가벼운 부담이 될 것이다. 사회사업학과 교수는 대학에 따라서 기준 책임과목인 세 과목 외에도 네 과목, 다섯 과목을 맡아야 하는 대학이 있으며, 이러한 과중한 부담을 지고서 충분히 준비하고 강의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교수들의 대부분이 實務經驗이 없다는 것 또한 사회사업학과의 특수성으로 보아 산 강의와 생생한 현실의 설명을缺할우리가 있다. 사회사업학과 교수들이 가지는 애로점 중의 하나는 敎材의 빈약이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사회사업 교재는 비록 최근에 종류가 다양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종류와 수에 있어서 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英語原書를 사용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나 대학 학부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일부 대학을 빼고는 원서를 교재로 써서는 따라오기 힘든 수준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 결과 학생들이 사전에 문헌과 자료를 이용하여 예습하고

와서 발표하게 하는 세미나식의 敎育方法이 어렵고 교수가 강당에 서서 주입식으로 강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교재의 편찬과 시청각교재의 활용은 사회사업교육에 있어서 시급히 해결할 課題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서 必設原書라도 올바르게 번역하여 공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 교수들의 합의된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사회사업(복지)학과의 수적인 급격한 증가는 현 정부의 복지사회 구현에 대한 열망과 이에 따른 복지사업 수행 인력의 확보라는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가가 우리 사회의 受容態勢와 관련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학과정을 이수한 전문 사회사업가를 양성한다는 과제는 사회의 人力需要와 직접 관련되며, 현재의 인력 균형은 제의하더라도 최소한 미래의 인력수요를 전망하면서 계획되었어야 한다.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전문 사회사업가의 需要와 供給間에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육의 낭비나 좌절을 초래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사실상 장래의 就業展望이 밝지 않다는 것은 사회사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공과목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고 좌절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慈善事業으로서의 인식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에서 사회사업교육 내용 자체마저 현실과 거리가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취업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것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탁월한 학생들의 志願率을 떨어뜨린다는지 계열별 지망에 있어 非人氣學科로 지정된다든지 재학중 탈락비율이 큰 학과가 되는 부작용을 낳게 하고 있다.

사회사업(복지)학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社會學科, 心理學科, 兒童福祉學科, 地域社會開發學科 등의 유사 학과와 學問領域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든다면 문제를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사회사업의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이 영역은 심리학의 相談分野와 중복되고 있다. 특히 社會事業 敎育內容에 있어서도 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발전시킨 내용을 수용하고 소화하여 변용시킨 면이 많으므로 학문체제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에 있어서도 소위 관할 領域의 論爭(territory dispute)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련학문 상호간의 협력 및 공동연구 체계의 수립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최근의 학문 경향을 보면 여타 학문간의 상호협력과 팀웍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사회사업학에 있어서는 특히 이 일을 더 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사업 교육과정은 社會事業 研修教育과 大學의 學部課程, 大學院課程, 博士課程으로 대변할 수 있다. 연수교육과정은 대학 이상의 수준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하지 않은 사회사업 종사자를 위한 現職訓練이나 準社會事業家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短期過程으로 사회사업의 기본 과목을 이수시키고 있다. 대학과정의 교육은 졸업 후에 전문 사회사업가로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고, 보다 고차적인 전문훈련이나 대학원교육을 받을 준비를 갖추도록 하며, 非社會福祉系列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實驗大學의 정신이 반영되어 大學水準에서는 사회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전공을 위한 기초과목을 이수하는 정도로 그치고 전공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大學院水準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 대학수준에서 전공을 깊이 다루어야지 대학원으로 미룬다는 것은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癡想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어 이 두 견해에 따라 각 대학의 敎育目的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소위 「generalist와 specialist 양성」에 대한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로서는 대학과 대학원간의 관계가 애매하다. 大學院 碩士課程에 개설된 과목과 大學에 개설된 과목이 그 명칭상 동일한 경우가 너무 많다. 實際 敎育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을 취급하고 있겠으나 과목에 있어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박사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적어도 대학원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과목이 다양하여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大學院 碩士課程과 博士課程의 교육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전부 수강해야만 소정의 기일 내에 과정을 끝마칠 수 있을 만큼 경직되게 이루어져 온 사실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이 그 특성을 살리는 敎科課程을 재편성하고, 학점교환제를 함의하여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타대학원에 가서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각 대학원을 개방하는 반탄적 運營方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각 대학마다 敎授要員이 부족한 실정에서는 숙고할 만한 방법이고 실제로 일부 대학원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IV

대학의 교육을 결정하는 데 있어 單位大學의 외적인 활동의 영향을 받는 것은 어느 학문이나 동일한 현상이다. 그러나 사회사업에 있어서는 교육의 信賴와 責任性을 보여 주기 위하여 이러한 활동이 보다 더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기관으로서 全國社會事業(福祉)大學協議會가 있어 사회사업교육의 基準을 정하고, 결정된 기준을 따를 것을 각 대학에 요구하며, 그 요구에 부합된 교육을 실시한 대학에만 사회사업교육의 履修를 인정하는 활동을 한다. 이 기구가 사회사업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에서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는 못하다.

최근에 사회사업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內容을 협의,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주고 있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외에 사회사업대학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組織으로서 사회사업학회, 전국사회사업가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기구가 있으나, 실제로 사회사업의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